

제헌헌법서 발견하는 민주공화국의 오래된 미래

헌법의 순간

박혁 지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헌헌법 제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헌헌법 제51조)

해방 후 정부 수립을 위한 첫 걸음인 '제헌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헌의원 198명의 첫 과제는 헌법 제정이었다. 두달 여가 지난 7월 17일, 헌법 전문과 103개 조항으로 구성된 '제헌 헌법'이 공포된다.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는 박혁 정치학 박사는 유연하게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며 '헌법의 순간'과 마주했다. "간절함과 의지가 빛은 광경이 제 심장을 상대를 설득하고 논박하는 언변과 논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말 그대로 '정치의 향연'입니다. 그 향연이 가슴을 뛰게 하고, 가슴속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76년 전 작성된 '제헌의회 회의록'을 보며 제헌의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생각을 만났던 때의 감정을 밝힌다. 제헌의원들은 다른 나라 헌법을 짜기나 졸속으로 만든 게 아니라 놀랍게도 6월 23일(헌법초안 보고)부터 7월 12일(헌법안 통과)까지 20일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제헌의원들은 국호와 정부형태, 영토, 인권, 교육, 양성평등 등 조문마다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과 가치를 담고자 애썼다. '적어도'라는 단어에는 초등교육 6년 무상의무에서 중등교육으로 확대되길 바라는 의원들의 미래지향적 '헌법 정신'이 담겨있다.

독자들은 저자와 함께 제헌의회 의사당으로 시간여

행을 떠난다. 저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와 국민-인민단어, 의무교육, 내각책임제-대통령제, 친일파 청산, 신체의 자유·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 14개의 쟁점을 설계한 20일의 역사 이야기를 풀어낸다. "…대한민국의 국호를 씌으로써 거룩한 3·1운동의 의미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정의법통을 계승하여 반만년 찬란한 역사를 접속한다는 의미에서, 나는 우리 국호를 대한이라고, 생명을 놓고 절대 주장합니다." (조국헌 제헌의원)

제헌의원들은 헌법 제1조에 담은 '국호'를 무엇으로 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저자는 '제헌의회 회의록'에 실린 여러 의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거수표결 결과 재석의원 188명중 찬성 163명, 반대 2명으로 국호 대한을 담은 '헌법 제1조'가 통과된다.

저자는 '국민'과 '인민', '3·1혁명'과 '3·1운동' 등 용어를 뭉개 써야 할지를 두고 벌어지는 의원들간 논쟁을 살펴본다. 남북분단과 좌우대립 속에서 의원들은 기본권 주체로서 '말뼉기 싸움'을 치열하게 벌였다. 또한 당시 정부형태를 정하는 내각책임제-대통령제 논쟁은 단 한사람만을 위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쟁점이기도 하다. 저자



제헌절(7월 17일)에 핸드 프린팅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있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는 헌법기초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내각책임제를 채택했지만 헌법초안이 뒤바뀌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제로 확정되는 내막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76년 전 제헌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의 '오래된 미래'를 본다. 유진호 헌법기초위 전문위원이 밝힌 대통령제의 폐해는 놀랍게도 요즘 상황과 닮았다. '제헌 헌법' 제정 과정을 되새김질 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개헌(改憲)은 대중들의 참여를 관심사다. 저자는 '다시, 헌법의 순간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맺음말에서 이렇게 밝힌다.

"헌법의 순간이라는 꽃봉오리를 기리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리고 기억해야 과거의 순간이 미래의 빛과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페이퍼로드:1만9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살아가라 그뿐이다-하버드에서 공부하던 저자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명사들의 조언을 공책에 기록해 왔다. 직접 수집한 문장에는 에피쿠로스학과, 니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등 철학자들의 사유가 담겨 있다. 80년 인생 경험을 거쳐오는 동안 들었던 의문을 철학자들의 일문일답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 완벽주의의 폐단과 쾌락주의의 비극, 유토피아의 불가능성, 인간이 자아라는 소우주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등을 이야기한다. <더퀘스트·1만7700원>

▲물리학은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인간의 상식이나 상상, 관념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물리학은 길라잡이가 되곤 한다. 우리가 보는 별빛이 수억 광년 전 별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 우주 어딘가에 우리의 복제본인 도플갱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 물리학은 단서가 되곤 한다. 스티븐 호킹, 카를로 로벨리 등 물리학자들이 남긴 논문을 통해 짚음을 되돌릴 수 있는지, 물리학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지 등을 고찰한다. <해나무·2만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학 상식 사전=최저임금제, 자유 시장, 민영화와 매몰 비용의 오류, 주택시장의 호·불황 등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는 끊임없이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한다. 행복경제학, 러다이트 오류 등 시기에 따라 주목받는 개념부터 마르크스와 스펀터의 상반된 관점까지



알아야 할 내용이 많다. 독점, 게임 이론 등 익숙한 개념은 물론 토피니퀴 유인 등 비교적 낯선 경제학 개념을 50가지 키워드로 살펴본다. <크레타·1만7800원>

▲우리 아이 두통은 왜 생기지 않을까=많은 아이들은 두통을 호소하지만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두통은 생각보다 의학적으로 증상 파악, 진단, 치료 등 모든 과정이 어려운 질병이다. 특히 아이들은 피로를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실제 두통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진단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아이들이 미리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며 저품질 탄수화물 섭취를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북하우스·1만9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버럭 왕자님='버럭 왕자'는 이웃 나라 공주에게 선물하기 위해 발찌를 만들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탓에, 유모가 차고 있던 발찌를 달라고 조른다. 유모는 선물이란 '정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 진정한 선물과 진심 어린 마음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유모는 버럭 왕자에게 마술을 걸기 시작한다. <가문비어린이·1만4000원>

▲우주농부=낯선 과학용어를 쉽게 풀이하면서 미래의 농업 이야기를 유쾌한 상상력으로 그렸다. 스마트 팜부터 우주선 내부에서 짓는 농사까지, 미래 세상의 농업

은 현재와 그 형태도 방식도 다를 것이다. 인공 태양을 활용하거나 기체가 인간과 협력해 비료를 뿌리는 등, 첨단 기술로 인해 변모할 우주의 모습을 상상력을 기반으로 담았다. <자음과모음·1만5000원>

▲한컷씩 수학사=선사시대 인류에게는 숫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냥과 채집활동 위주의 삶을 살았기에 숫자가 없어도 일상에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수학은 필수 요소가 됐다. 컴퓨터공학이나 미적분을 통한 날씨 예측 등 인류 수학의 변천사를 비롯해 문명에 끼친 영향 등 60가지 사건을 마주한다. <폴빛·1만5000원>

수학을 사랑한 첼리스트와 클래식을 사랑한 수학자의 대화

내일 음악이 사라진다면

양성원·김민형 지음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 전문가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외부자의 질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만드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음악, 특히 클래식을 둘러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연주자와 수학자가 만났다. 수학을 사랑한 첼리스트 양성원과 클래식을 사랑한 수학자 김민형이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엮은 '내일 음악이 사라진다면'은 수학자와 연주자의 음악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런던 로열아카데미오브뮤직의 초빙교수로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한 양성원 교수는 당시 수학과에 재직하던 김민형 교수를 만나 음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학창 시절 독일 가곡을 외워 부르는 등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던 수학자와의 대화는 흥미로웠던 첼리스트는 음악에 대한 책을 함께 써 볼 것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에 대한 대화집이보니 책을 읽다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와 오자와 세이지의 대담집 '오자와 세이지씨와 음악을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클래식과 재즈 마니아로 알려진 하루키와 마에스트로 세이지의 책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과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등 작품이나 연주자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 이 책은 음악이 주는 감동은 무엇인지, 수학과 음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 좀 더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특히 클래식을 포함한 음악을 들으면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 김민형이 때론 직설적으로 질문한 덕에 독자들도 자신만의 답을 생각해 보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양성원이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연주하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낭만주의 시대음악에 대한 감상,

아티스트의 천재적 재능, 전문성과 대중화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로 뻗어나간다.

특히 두 사람이 가장 점에하게 대립한, '음악은 항상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주제가 눈길을 끈다. 듣기 좋은 음악도 때론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전쟁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수학자의 주장에 대해 연주자는 음악의 파괴적인 영향은 음악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이기에 음악이 인간을 감정적으로 고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 생생한 현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라이브 공연을 즐기는 것과 녹음된 음악을 듣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서양에서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클래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클래식의 대중화와 엘리트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지 등 흥미로운 주제가 이어진다.

책 말미에 실린 바코드를 통해 카잘스과 로스트로포비치를 포함해 책에서 언급된 연주자의 곡들과 주파수 그래프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영사·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